

목포권

목포 자유시장 “문화·예술도 팝니다”

목포 자유시장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유통과 문화가 숨쉬는 복합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6일 목포문화원(원장 김석철)에 따르면 지난날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에 목포문화원이 제안한 ‘금 나와라 똑딱이’ 선정돼 6억5천만 원(국비 3억2천500만원, 시비 3억2천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목포문화원은 자유시장 내부·옥상·난간 외벽·주변 환경 등 하드웨어를 새롭게 꾸미고 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목욕탕 등 교묘하게 공간, 유틸리티·갯바위 등 유·무관공지를 자유시장 홈페이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펼친다.

문화부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복합 문화공간 탈바꿈 관광명소로 조성

세부적으로 ▲공공디자인=도깨비 조형물 제작, 시장지도 만들기, 벽화 제작, 자유공예장 설치 ▲공연·전시=상인공동체와 함께 하는 퍼포먼스, 옥상 자유공연, 미술인 풍경전 ▲온라인=홈페이지 설치, 인터넷 홍보마케팅 ▲교육=가족 연날리기, 풍물사업, 동아리화 가계 그리기 ▲출판=홍보엽서 제작, 시장안내 브로슈어 제작 등이 개발된다. 또 ▲관광·홍보=서틀버스 운행, 홍보 애드벌룬 설

치 ▲연구 워크숍=종합사업 설명회·전문가포럼 개최, 통계작성 등이 마련된다. 김석철 원장은 “역사와 규모면에서 목포의 대표성을 지닌 자유시장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차근차근 개조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유시장은 단순한 시장개념을 넘어 새로운 문화예술의 생산지이자 매개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이웃사랑 듬뿍 퍼 드려요” 목포지방법원 목포지청(지청장 정성운)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혁영)는 6일 법피너눔 운동 목포지부에서 소의 계승 200여명을 초청,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전남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 항만청, 가사도 등대 재정비

‘서해 해상교통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진도 가사도 등대가 재정비된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30여억원 들여 조도면 가사도 등대 건물과 등탑 등을 짓는 재정비 사업을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1915년 처음 무인등대로 불을 밝힌 이 등대는 선박의 폐쇄화와 선박 통항량 증가에 따라 등대 기능을 강화해

1984년 7월부터 등대원이 상주하며 항로표지 기능을 유지, 관리해오고 있던 건물에 낡아 불편을 겪어왔다. 등대 재정비가 끝나면 항로표지 기능 등 해상과 등탑 등을 짓는 재정비 사업을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1915년 처음 무인등대로 불을 밝힌 이 등대는 선박의 폐쇄화와 선박 통항량 증가에 따라 등대 기능을 강화해



국립공원공단, 흑산도·홍도 컴퓨터 수리 봉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5월 한 달간 신안군 흑산도·홍도에서 컴퓨터 무상 점검·수리를 실시한다. 그동안 흑산도·홍도 지역주민들은 AS업체의 출장비 증가 등으로 인해 PC 점검이나 수리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했다. 서부사무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컴퓨터 분야 전문가와 점검·수리 가능 인력을 활용, 고장난 PC를 수리해주고 랜카드와 마우스 등 간단한 소모품도 공단에산으로 구입해 교체해주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목포, 개별주택가격 1.41% ↓

목포시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1.41% 하락했다. 목포시가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조사 산정한 공사대 주택 1만2천370호 중 유달동 소재 A주택이 7억7천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은근동B 주택이 2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목포시 개별주택 평균 가격은 3천400만원이며, 유달동 소재 A주택은

전남지역 개별주택 가격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격 변동율을 비교해보면 목포시가 1.41% 하락한 반면 전국 평균은 1.84%가 하락했고, 전남지역도 평균 2.8% 하락했다. 이번 4월말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며 5월 한 달 동안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KB 국민은행 ‘목포사랑운동’ 협약

목포시와 한국일보사, KB국민은행은 복지기금 마련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6일 ‘내 고향 목포사랑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내 고향 목포사랑카드’ 회원을 추진해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으로 저소득층을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카드 발급시 1좌당 1만원을 복지기금으로 특별지원하고, 카드 사용액의 0.2%를 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진도 홍주 인터넷 이벤트 ‘대박’

2만1천785명 참여 포털 검색순위 2위 차지

진도군이 인터넷을 통한 진도 홍주 홍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진도군은 명품 전통주인 진도 홍주를 널리 알리고자 지난 3월 25일부터 36일 동안 시행한 인터넷 홈페이지 행사에 2만1천785명이 참여하는 등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포털 ‘다음’ 검색어 전종류 부문 2위를 차지하는 등 진도군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부산에 사는 변모씨가 1등 경품에 당첨돼

김치 냉장고를 받는 행운도 얻었다. 특히 진도 홍주 홈페이지는 2006년 개설 후 3년 동안 20만명이 찾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진도군은 홍주의 소비층 확대와 관련 개척을 위해 전통주 최초로 진도 홍주의 날(7월 7일)을 제정한 데 이어 오는 7월 7일 오후 7시 7분에 진도향토문화회관 특별무대에서 진도 홍주의 날 기념행사, 유명 가수 초청 축하공연 등도 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진도군 공무원들 매달 월급떼 학생 32명에 장학금 2,900만원

진도군 산하 공직자들이 봉급의 일부를 출연, 설립한 재단법인 철마 장학회는 최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2009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회는 진도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체능 특기생 32명에게 64만원, 진도출신 대학 신입생 허진웅(고려대 1학년)군 등 58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천9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회 부이사장 남상창 진도부 군수는 “장학금은 군민의 탐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교육여건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지역사회개발 송영삼·박일상 교육문화 배근호 체육부문 김은아

‘무안 군민의 상’ 선정

무안군은 ‘무안 군민의 상’ 수상자로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송영삼 대산건설 대표와 박일상 무안군 변영회장, 교육문화 부문에 배근호 전 무안교육장, 체육 부문에 김은아 핸드볼 선수를 선정했다. 송영삼 대표는 무안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환경관리 종합센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완공했다. 박일상 변영회장은 기업도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과 무안시 승격



송영삼, 박일상, 배근호, 김은아. 송영삼은 대산건설 대표로 박일상은 무안군 변영회장, 배근호는 전 무안교육장, 김은아는 핸드볼 선수로 선정됐다. 송영삼 대표는 무안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환경관리 종합센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완공했다. 박일상 변영회장은 기업도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과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무안기업도시 유치에 일조했다. 배근호 전 무안교육장은 교사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했던 32명의 학생에게 사재를 털어 학비와 교재를 지원해왔다. 김은아 선수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여자 핸드볼선수로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군민의 상 시상식은 7일 승달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 41회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마련된다. /무안=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Korea National Law Auction) with phone number 0621364-8700 and H.P 010-4608-3700. The ad promotes legal auctions for various properties and businesses.

A large table containing real estate auction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in Gwangju, Jeonnam, and Jeonbuk. The table is organized by district (e.g., Gwangju, Jeonnam, Jeonbuk) and includes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other details. It lists numerous properties for sale or auction, providing specific data for each listing.

• 권리분석·현장감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명도(이사)